문법의 끝

유현주 선생님이 쓴

2015학년도 3월

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A형

11~15번 문법 해설

상위 오답률 5위

1위 : 30번 (79.0%) ☞ 독서(예술)어휘

2위 : 14번 (54.0%) ☞ 문법

3위 : 45번 (48.0%) ☞ 현대소설

4위 : 19번 (46.0%) ☞ 독서(과학)

5위 : 26번 (43.0%) ☞ 독서(사회)

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시험을 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
틀린 문제는 왜 틀렸고, 맞은 문제는 어떻게 맞췄는지 잘 생각하며 복습해 주세요.
질문이 있으시면 강의 게시판, 페이스북, 카페 등 모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^^*

11번) 음운의 변동 【정답 - ②】

정답 해설

옷하고[오타고]는 '옷'의 종성인 'ㅅ'이 음절 끝소리 규칙(교체)에 의해 [온하고]로 바뀐 후, [온]의 종성인 'ㄷ'과 '하'의 초성인 'ㅎ'이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축약되어 'ㅌ'으로 발음된다.

즉, 옷하고 → [온하고 → 오타고]로 발음되며 이 때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다.
음끝(교체) (축약)

홑이불[혼니불]은 접두사인 '홑'과 어근인 '이불'이 결합된 파생어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'ㄴ'첨가가 일어나 [홑니불]이 된다. 이후, '홑'은 음절 끝소리 규칙(교체)에 의해 [혿]으로 발음된 후, 뒤에 이어지는 '니'의 초성인 비음 'ㄴ'을 만나 비음화(교체)되어 [혼니불]이 된다.
즉, 홑이불 → [홑니불 → 혿니불 → 혼니불]로 발음되며 이 때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다.
첨가(첨가) 음끝(교체) 비음화(교체)

12번) 용언의 활용 【정답 - ④】

정답 해설

용언인 '줄이다'를 활용하면 '줄이고, 줄이니, 줄이어(줄여)' 등으로 변화하고 이 때, 어간은 '줄이-'이다. '줄이다'는 '줄다'의 사동사이므로,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'줄-'이 된다. 용언인 '힘들다'를 활용하면 '힘들고, 힘드니, 힘들어' 등으로 변화하고 이 때, 어간은 '힘들-'이다. '힘들다'는 어근인 '힘'과 어근인 '들-(다)'이 결합된 합성어이므로, 어근은 '힘'과 '들-'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. 용언인 '오가다'를 활용하면 '오가고, 오가니, 오가' 등으로 변화하고 이 때, 어간은 '오가-'이다. '오가다' 역시 어근인 '오-(다)'와 어근인 '가-(다)'가 결합된 합성어이므로, 어근은 '오-'와 '가-'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.

13번) 담화의 대명사 활용 방식 【정답 - ①】

정답 해설

'그것'은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였다. 앞에 나온 문장을 보면 A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의 내용이 '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'는 것을 알 수 있다.

오답 해설

② '자기'는 앞서 언급한 '영희'를 다시 지칭하기 위한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.
③ '아무나'는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3인칭 부정(부정칭) 대명사이다.
④ '누구'는 화작 지시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쓰이는 3인칭 의문(미지칭) 대명사이다.
⑤ '거기'는 A가 앞서 언급한 '교실'을 가리키기 위한 지시 대명사이다.

14번) 사전 활용하기 【정답 - ③】

정답 해설

'달다[1]'의 ㉠은 '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'를 의미하는데, 이는 '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'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. 예문의 '달아'의 '달다'는 '【…에 …을】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.'의 뜻을 나타낸다.

오답 해설

① 동음이의어는 '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'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사전에 표기될 때에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표기된다.
② '달다[1]'과 '달다[2]'의 활용형을 보면 모두 [달아, 다니, 다오]로 연결 어미 '-니'가 결합되면 '다니'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④ '달다[2]' ㉠의 속담은 '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'라는 문장으로, '달다'와 '쓰다'가 대구적 표현으로 반의 관계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.
⑤ '달다[1]' ㉡은 〈보기〉를 보면 옆에 '【…에 …을】'이 나와 있어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3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고, '달다[2]' ㉡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주어만 있는 1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.

15번) 문법 범주 【정답 - ③】

정답 해설

㉡의 능동문은 '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'인데, 이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. '두 학생이 각각 참새 네 마리를 잡은 경우'가 있을 수 있고, '두 학생이 잡은 참새의 총합이 네 마리인 경우'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므로, ㉡의 피동문 또한 '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 각각에게 네 마리씩 잡힌 경우'가 있을 수 있고, '참새 네 마리를 두 학생이 함께 잡은 경우'가 있을 수 있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. 그러나 문제에서 '능동문과 달리'라고 하였으므로 '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'는 내용은 선지 자체에 오류가 있어 오답이 된다.

㉢의 능동문은 '낙엽이 바람에 난다'인데, 이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 그러므로, ㉢의 피동문 또한 단일 의미로 해석되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.

오답 해설

① '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'는 '덮다'에 피동접사인 '-이-'를 결합한 피동문이긴 하지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 진행된다는 동작의 의미가 없이 완료의 의미가 강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.

② ㉠의 능동문의 주어는 '눈이'이고, 이것이 피동문에선 부사서인 '눈에'로 바뀌었다. 또, ㉡의 능동문의 주어는 '두 학생이'이고, 이것이 피동문에선 '두 학생에게'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이다.

④ ㉢의 '난다'는 자동사인데, '날리다'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타동사이다.

⑤ ㉣은 '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'처럼 피동문은 있으나 능동문이 없는 예로, 적절한 선지가 된다.